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 <박수진>

제목 : 나의 일과

오늘은 나의 일과를 소개할 것이다.

오늘은 7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런데 밖에서 TV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아버지가 배게를 태고 이불을 덮어서

TV를 보고 계셨다. 나도 옆에 누워서 TV를 보았

다. 아버지와 나는 해피타임을 보았다.

해피타임은 예전의 드라마를 간추려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아침을 먹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 댁은 안전진흙이 없다. 신발이

흙이 묻어서 할아버지가 물로 신발을 씻었다.

그래서 맨발로 차까지 가서 지하주차장에서도

맨발로 있었다.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신발이

없어서 못나갔다. 슬프다. TTT

아버지가 오셔서 집에 갔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저녁밥을 너무 무진했다.

오늘저녁은 아버지와 김치찌개와 엄마표 코리올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런닝맨을 보았다.

오늘은 런닝맨 VS 정글의 법칙이 서로 싸웠다.

최종으로 정글의 법칙이 승리하였다. 그래서

금반지를 받았다. 빅립다. 나는 오늘 거론을 못본다.

이게다 엄마 때문이다. 나는 비쳤다. 흥!!

이것이 나의 하루 일과다.